

### ◎ 慶熙大, 첫 교수계약제 도입

경희대는 지난 2월 7일 신규임용 교수를 상대로 강의, 연구능력 및 사회기여도 등에 따라 3년후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교수계약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같은 교수계약제는 국내 대학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교수들간 경쟁체제를 유도해 강의 및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여서 주목된다.

경희대는 “3년후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는 조건 아래 오는 2학기부터 신규교수를 채용하고 3년후 재계약 대상이 되는 교수들에 한해 종신재직권(tenure)을 부여할 방침이다. 경희대는 또 종신재직권을 지닌 교수들도 엄격한 업적평가에 따라 ‘조기진급’과 ‘승진보류’ 대상으로 나눠 급여 및 연구비를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한편, 동교 평화복지대학원은 지난 93년 12월 10일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거행된 시상식에서 유네스코 평화교육상을 수상하였다. 이 평화교육상은 유네스코 설립정신과 UN 현장에서 평화를 위한 인류의 양심을 발휘하고 인류의 양심에 평화를 구현하고자 하는 행동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지난 80년 제정되었다.

### ◎ 서울大, 비슷한 학과 통폐합

서울대는 지난 2월 4일 학문영역이 비슷한 학과를 학부제로 통폐합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학칙과 서울대학교 설치령 등을 고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또 고전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인문적 소양을 넓히기 위해 올해부터 고전읽기 강좌를 마련하고, 인문계 학생들에 대한

전산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대 김종운 총장은 “현재 공대·자연대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부제를 인문·사회대까지 확대하기 위해 학칙 등을 손질하고 있다.”며 “올해를 학부제 실시 원년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는 이에 따라 인문대 철학·역사과, 사회대 정치·외교학과, 경제·국제경제학과 등을 학부제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김 총장은 또 “교양교육 강화를 위해 올 1학기부터 고전읽기 강좌 16개를 마련하고 인문·사회·법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산교육 특별강좌를 열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대는 심각해져가는 교통신잡을 피하고 수업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종전보다 1시간 앞선 오전 8시부터 강의를 시작하는 ‘조기강의제’를 내년 1학기부터 13개 강좌에서 실시키로 확정하였다.

조기강의제는 최근 서울대 측이 교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기강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3명의 교수가 긍정적인 답변을 해움에 따라 이들 교수의 과목에 한해 조기강의제를 실시키로 한 것이다.

### ◎ 延世大, 학부생 대학원 수강 허용

연세대는 대학원 강의를 받은 학부생들이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학점을 인정해 주는 ‘학부-대학원 학위과정 연계제도’를 도입해 올해 새학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연세대에 따르면 이번 새학기부터 성적이 우수한 학부 4학년 학생들에게 대학원 강의를 받도록 허용하고 취득한 학점을 대학원에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연세대의 이런 방침은 우수한 학생들이 미리

대학원 수업을 받아 학점을 취득함으로써 대학원에 진학한 뒤에는 연구와 논문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학부-대학원 학위연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학부 대학생은 3학년 때까지의 학점 평균이 3.5점(4.0 만점) 이상이어야 하며 4학년 1년 동안 6 학점까지 대학원 수강이 허용된다.

학부생이 얻은 대학원 학점은 학부 의무취득 학점 140 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대학원에 진학하면 자동으로 대학원과정 이수학점으로 인정된다. 연세대는 이런 제도를 마련해 지난해 12월 20일 교육부의 승인을 받았다.

연세대의 한 관계자는 “학위과정 연계제도는 대학을 대학원중심·연구중심 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한 장기발전 방안의 하나”라며 “이 제도가 도입되던 학생들이 학부 때 대학원 진학 등 자

신의 진로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 全南大, 학사일정 17주로 운영

전남대는 올해부터 학생들의 수업결손을 최소화하고 수업의 내실화를 꾀하기 위해 현행 학기당 16주인 학사일정을 17주로 편성, 운영키로 하고 중간고사 실시도 교수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전남대의 이같은 방침은 중간고사 기간과 법정 공휴일 등으로 인해 수업결손이 생기는 점을 감안, 16주를 채우지 못하는 강의의 경우 한 주 연장해 17주까지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